

희생적으로 숨어서 30여년동안 인술봉사해온 이봉기치과의사



▲ 이봉기 치과의사

『마음이 아직까지 매우 무겁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상이지요. 저는 다만 제가 배운 의술을 사회에 환원했을 뿐입니다...』

지난 13회 보건의 달 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한 이봉기치과의사의 수상소감이다. 아직까지도 그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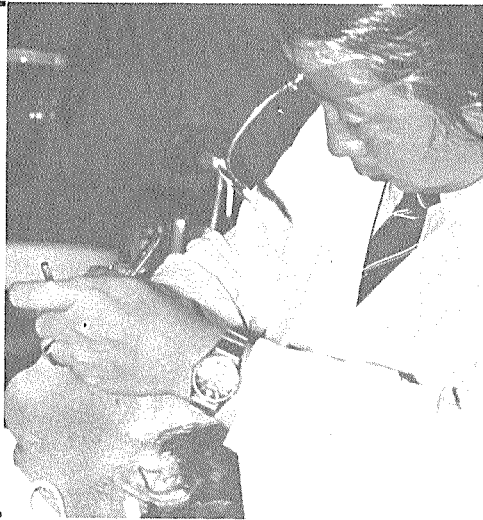
시의 여운이 남은 듯한 인상을 기자는 첫 질문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1974년 4월부터 12년동안, 치과의사 없는 농어촌 벽지의 무의촌(無醫村)에서 어린이와 불우한 노인 1만3천8백명에게 무료로 구강검사를 해주고, 3천6백27명의 썩은 이를 뽑아 주었으며, 틀니(義齒) 36개를 끼워주는등 희생적으로 숨어서 인술을 봉사해온 이봉기 치과의사(혜춘병원 치과의사·56세)는 그의 의료활동이 올해로써 꼭 30년을 맞이한다고 했다.

—인술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요?

『그러니까 72년도 어느날 우연히 시사통신이라는 월간지를 보니까, 백화점 여직원들이 양로원(구세군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는것이 기사화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구세군 양로원(현 파천시소재)에 전화를 걸었지요. “나는 치과의사인데 내가 배운 의술을 양로원에 있는 불우한 노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는데 어떤가”하는 의향을 물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동기라면 동기라고 할 수 있지요.』

●●1974년 4월부터 12년동안, 치과 의사 없는 농어촌 벽지의 무의촌(無醫村)에서 어린이와 불우한 노인 1만 3천 8백명에게 무료로 구강검사를 해주고, 3천 6백27명의 썩은 이를 뽑아 주었으며, 틀니(義齒) 36개를 끼워주는등 희생적으로 숨어서 인술 봉사해온 이봉기 치과 의사 ●●



『또한 치아가 없어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조차 제대로 씹지못해 안타까와하는 노인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 이들을 돕게 되었던 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라고 이봉기치과 의사는 말한다.

— 그후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74년도 10월쯤 되었을 겁니다. 2개월마다 벽지학교인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동내국민학교를 찾아 7백여 어린이들의 이를 치료해주고 귀갓길에 춘천시립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그일은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혹시 그와같은 의술봉사를 하는 중에 숨은 미담같은것은 없었는지요?

『춘천시립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처음 할때입니다. 노인들이 “속지 않겠다”며 진료를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구강검사만 실시한 후 사실을 알아보니 그곳을 찾은 사람들의 거의가 노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여 학술통계표나

학술용 자료에 참고자료로 사용 하고는 이들의 치료에는 좀 등한시 했다는 얘기를 지나는 말로 들었습니다. 2주후에 다시 양로원을 찾아가 진료를 하니까 그전에 진료를 거부하던 노인들까지도 치료를 자청해 오더군요.』라고 이야기하는 이봉기 치과 의사에게 기자는 문득 벽면에 진열된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을 실감으로 느끼게 했다. “박애정신”이라는 문구를 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하기 쉬우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 의료봉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 의술을 행하는 의사들의 사상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글쎄요. 제 의견으로는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애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의술을 배운 것은 사회에 환원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금전관계를 위주로 하여 의술활



“ '86·88은 아주 큰대회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울만한 일들이지요. 그대회 전까지, 저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튼튼한 이를 가진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현재 치과의사생활 30여년을 하고 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의술을 알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경륜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는, 이봉기씨의 깊은 연륜의 자국인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이 수없이 지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 현대인들의 치아를 튼튼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후 꼭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하루에 꼭 다섯번 이상의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매식후마다 한번씩 3번, 저녁에 한번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단것을 많이 먹지말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이해하기 쉽고, 돈도 안드는 일이며, 그것이 이를 튼튼하게 하는 최

선의 방법이라고 이봉기 치과의사는 덧붙여 말했다.

— '86 아주대회와 88올림픽을 맞이하여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86·88은 아주 큰 대회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울만한 일들이지요. 그대회 전까지, 저는 선진국에 뒤지지않는 튼튼한 이를 가진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기자는, 자기 일에 대해 자부심과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주에 강원도 춘성군 동내국민학교에서 구강검사를 나가, 튼튼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이봉기씨말. 다음주의 출장준비를 위해 바쁜 준비를 하고 있었다.